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3. 수요성경공부

수요성경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 4.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

오늘 주일 애잔 후에 친교실에서 갖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난 주 (4/7)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3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김중대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5:33-39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새포도주로 텃입혀지는 삶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4월 21일	4월 28일
강민선	윤하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21) 부르러 왔노라

본문 : 눅5:27-32

상담용어중에 “애정결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애정결핍을 느끼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집착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소유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애정결핍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환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환자는 환자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환자는 환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사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아 먹은 매국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시선처럼 보여집니다. 누구라도 그런 불편한 시선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당시 시대로서는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든자, 가난한자, 죄인들, 세리, 창녀 등 당시 시대속에서는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신을 깨끗하다 여기던 종교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행보이며 충격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어찌보면 명령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따르라고 한다고 따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신비적인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비워 자기 희생을 이룬 삶의 본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지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